

유럽 성직자 감소...교회논리 한계노출

정각원 개강법회 호진스님 강연

호진스님(동국대 불교문화대)은 98년 2월부터 1년간 프랑스 국립 제4대학과 제7대학에서 연구활동을 마치고 귀국, 10일 정각원에서 열린 99년 개강법회에 법사로 참석 '유럽의 종교현황'에 대해 강연을 했다.

스님은 유럽의 종교 현황에 대해 "과거 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일축했다. "예전에는 1백여명의 성직자들이 수도원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70여명으

로 줄어 있었다. 어떤 시골에는 1~2명의 신부가 10여개의 교회를 맡아 운영하는 곳도 있다"며 갈수록 젊은 성직자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성직자들과 자주 만났다는 스님은 "그곳 성직자들은 '교리가 21세기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가'고 반문했다"며 "복제 동물이 생성되는 시점에 교회의 논리는 곳곳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 프랑스 성직자들의 생

각이다"라고 밝혔다.

불교 현황에 대해 스님은 "프랑스 불교인구는 개신교와 비슷한 6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티벳불교에 치우쳐 있다"며 "프랑스에서 불교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또 "프랑스에서는 불교관련 서적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불교는 무종교인들에게 가장 선택하고 싶은 종교로 꼽히고 있지만 윤회설 등에서 기독교의 창조론이나 부활론 등과 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착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관사도 감옥처럼 해보세요"

삼중스님 사법연수원·고대서 법문

현직 판사 40여명과 법대생 5백여명이 30여년간 교도소 재소자 교화사업을 펴온 삼중스님(부산 자비사 주지)의 법문을 듣는다. 사법연수원은 오는 23일 오후 3시30분부터 두시간동안 스님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이날 강연에는 전국에서 온 형사단독실무 판사

40여명이 참석한다. 삼중스님은 '재소자의 생활과 생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강연에서 재소자들의 아픔과 뒷얘기를 들려주며 판사들에게 재판에 좀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스님은 판사들에게 교도소 체험도 권유할 생각.



이예알서 고려대 법대는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역시 삼중스님을 초청한 가운데 예비법조인들의 인성강좌를 마련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교차로

위한 하루차집을 연다. (051)853-5486

예앞서 9일부터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LA관음사 창립 25돌 법회

도안 미국 LA관음사 주지는 14일 관음사 창립 25주년 기념법회를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회양정학회 사무실 이전

정희수 회양정학회 이사장은 5일 서울 사무소를 종로 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202호로 이전했다. (02)730-0798

백양사 승가대 졸업식

다정 백양사 주지(승가대학장)는 5일 향적전에서 졸업식을 가졌다.

경원학원 이사장에 취임

이길여 길의료재단 이사장은 11일 경원대학에서 졸업식을 가졌다.

황희문화상 정신부문 대상

원종중 암송가대 총동문회장은 14일 예술의전당 서관에서 4층 문화사랑방에서 99년 황희문화상 정신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인도의 사원'주제 범강좌

신영환 목사(문화재전문위원)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20분 법연사에서 '인도의 사원'을 주제로 범강좌를 진행한다. (02)733-5322

옥수복지관 분소개소

삼덕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은 16일 옥수1동 분소개소식을 개최한다. 복지관은 이

동국대 총동창회 회장

권노갑 국민회의 고문은 11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정기

대흥사 중앙총회의원 몽산스님 당선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중앙총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현 대흥사 부주지 몽산스님이 당선됐다. 대흥사는 10일 산중총회를 열고 중앙총회의원 보궐선거에 단독인후보 몽산스님을 무투표 선출했다. 몽산스님은 1962년 천운스님을 은사로 화엄사에서 사미계를, 71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94년 대흥사 기획국장을 역임했다.

이사회에 제20대 회장으로 선임

이사회에서 제20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권고문은 1959년 경 제학과를 졸업했다.

계점목사

김공로를 인정받아 6일 러시아 국립예술대학교에서 주는 최우수작가상을 받았다.

고산스님 초청강담회

신광식 한국불교연립회 회장은 20일 오전 7시 서울 프레젠테이션 19층 목련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초청 강담회를 개최한다.

한국출판 학회장에

윤형두 범우사 대표는 최근 열린 한국출판학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4년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러시아 예술대서 작곡가상

정부기 중앙대 교수(작곡과)는 '부타의 노래' 등 한 곡음악과 서양음악을 훌륭하

대전 계룡대서 전역 법회

강남석 해군군종감(전 군종단장)은 28일 대전 계룡대에서 전역법회를 갖고 전역한다.



박노해시인 귀농학교장 도법스님 방문

'노동자 시인' 박노해(42)씨는 10일 전북 완원 실상사 불교귀농학교(교장 도법스님, 실상사 주지)를 방문했다. 박노해씨는 농사공동체를 일구려는 도법스님과 만나 참다운 공동체와 그걸 가꾸려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씨는 감옥에서 '화엄경'을 풀어 쓴 도법스님의 글을 읽고 '진정한 도반'을 얻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사진=한계신문 제공



서초 구민을 위한 신년 대법회

서초구사민연합회는 10일 서초구민회관 강당에서 제2대 회장 해덕스님 취임식 및 서초구민을 위한 신년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일본 고려사 주지 태연스님, 일송총무원장 혜정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한불회 노숙자센터 보현의 집 위문

부산 불교교육대학 제6기 졸업생 위주의 신행모임인 한불회(회장 백동홍) 회원 15명은 4일 노숙자 쉼터인 부산 보현의집(소장 이기표)을 방문, 입소자 1백여명에게 1백5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6백kg을 선물했다.

"불교는 한국사회발전 원동력"

삼국사기 러어 번역 미하일차 교수

<삼국사기>를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데 평생을 바치고 있는 미하일차(81) 모스크바대학 교수가 내한했다. 한인 3세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태어난 그는 러시아에서 한국 고대의 정치·종교 연구의 기반을 닦아왔다. 박교수는 "고대사 연구를 하다 보니 한국인의 깊은 종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불교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걸쳐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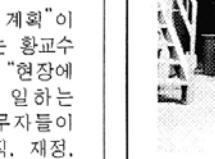
의 흥망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한국의 종교성이 사회 발전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59년 <삼국사기 번역 및 연구> 제1권, 95년 2권을 펴낸 데 이어 올 연말 마지막 3권의 번역을 완성할 예정이다. 박교수는 89년부터 3년간 '재소 한인협회장'을 맡아오면서 45만여 한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같은 업적은 이인호 주러시아 대사과 열반종 혜국 총무원장에 의해 국내에 알려져, 4일 KBS가 해외 한인족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자랑스런 한국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불교종무 현대화 심층강의"

한성대 종무행정 고위과정개설 황진수 교수

교수불자연합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해 온 한성대 황진수교수(사회교육원장)는 불교 종무행정업무가 타종교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불교종무행정 고위과정(학부과정)을 학교학과 협의에 이반 학기부터 사회교육원에 개설했다. "불교종무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지식 전수, 각종 행정기술 습득, 시사문제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심층적으로 분석 강의



할 계획"이라는 황교수는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조직, 재정, 회계 등 중무형의 이론과 실제는 물론이고, 정보화, 문화, 사회복지 등 현실과 제에 대한 안목을 넓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99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월30%
불교학과	2년	■주간40명 ■야간40명 ■통신40명	· 고등학교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조계종 승려 · 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30명 ■통신40명	· 최종학교 졸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 종명서1통	
중국어과	2년	■주간20명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통신20명	· 주민등록등본 1통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준비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불교학부 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91.8 불교학부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준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불교학부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취득
94.2 불교학부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11 국가인정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5.2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3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8 불교학부 1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11 불교학부 18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98.2 국가인정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료후)
99.2 제 8회 졸업생 배출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人事 말씀

禪刹大本山 金井山 梵魚寺 門徒葬 金河堂 光德大禪師의 永訣式 및 茶毘式을 불기 2543년 3월 3일 종단의 元老大德스님과 各界人士 재가불자를 모신 가운데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공사 多忙 하심에도 불구하고 參席해주신데 대하여 일일이 찾아 뵈고 인사드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慌忙中이 읊기에 우선 지면으로 심심한 感謝의 인사를 드리오니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金河堂 光德大禪師의 49재를 다음과 같이 奉行하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3년 3월

齋	날짜	불광사 ☎(02)413-6060~2
초齋	3월 5일	불광사
2齋	3월 12일	"
3齋	3월 19일	"
4齋	3월 26일	"
5齋	4월 2일	"
6齋	4월 9일	"

四十九齋 4월 16일(금) 불광사

장의위원장 지 유
호 상 덕 윤
집행위원장 성 오
상좌대표 지정·지 암